



지난 15일 장수군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장수를 선창리 음선마을 김병길씨 농가 사과재과 작업을 돕고 있다.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장수군, 민·관 합동 400여명 참여 ... 이달 31일까지 진행

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공무원, 군인, 기관·민간단체와 합동으로 400여명이 참여하는 봄철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일손돕기는 지난 15일 장수읍행정복지센터의 장수를 선창리 음선마을 김병길씨 농가 사과재과 작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수를 김보씨 사과농장 등 도움이 필요한 농장을 선정하여 군청 내 전 실과읍면이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작업은 사과재과부터 오미자 수파

기, 고추말뚝박기 등 다양하며 각 부서의 당면업무를 고려하여 실시 날짜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부서의 담당읍면 농가 중 독거농가, 장애농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과수 원예 등 수작업 인력이 일시에 많이 필요한 농가 등으로 지원 한다.

특히 올해는 4월의 저온현상으로 과수농가의 결실률이 떨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전직원을 동원한 일손돕기가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이달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에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해 적기 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동환 부군수는 24일 지사에서 일손 돕기 추진 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락, 작업도구 등은 미리 본인들이 지참해줄 것과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일손 돕기를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로 여기고 농장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결과를 각 부서에서 취합하여 적극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을 선별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 동행캠프 개소식 성황



더불어민주당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진안버스터미널 2층에서 지역주민과 지지자들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항로 후보는 인사말에서 "후보 선거사무소 명칭을 동행캠프라고 했다."고 밝히고 "한 사람이 열 발 걸어가는 것 보다 열 사람이 한발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안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안, 잘 사는 진안을 만들어 진안의 미래에 희망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이자 출마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항로 후보는 특히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는 진안이 처한 가장 시급한과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아 키움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신축, 운영 함 으로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자녀양육 종합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년이 살아야 진안의 미래가 있다 라는 각오로 청년수당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회관 건립, 청년 물 조성 및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 진안을 젊은 청년의 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학교 19기 개최

장수군귀농귀촌지원센터(센터장 이수재)는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주말기간 총3회에 걸쳐 제19기 귀농학교를 진행한다. 지난 5월19일(1회차)에는 장계면 대곡관광지에서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협의회 소개 및 장수군 귀농귀촌 정책 안내·현장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5월26일~27일(2회차)에는 한국농업연구원에서 귀농선배와 함께하는 특강 및 실습농장 교육이 있을 예정이며, 6월2일~3일(3회차)에는 육십령권역에서 진행되며 집짓기 교육·뜰봉샘투어·그룹별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 '참 교육 愛 공약' 발표



백경태 더불어민주당 무주군수 후보가 24일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참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백 후보는 교육 관련 공약을 "참 교육 愛"로 통일하기로 하고 "참교육 愛" 공약을 통해 지역의 교육수준을 전복도를 벗어나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백경태 후보는 먼저 군내 유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무주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100% 무상급식을 실시해 지역 농가들의 판로확보 해결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도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단위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키즈형 카페, 기부장난감으로 운영될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을 위해 주말마다 운영되는 재능발굴 교실, 국제적 교류와 기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운영될 영어도서관, 이 외에도 전국 최고수준의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갖춘 도서관의 건립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단위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키즈형 카페,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을 위해 주말마다 운영되는 재능발굴 교실, 영어도서관, 이 외에도 전국 최고수준의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갖춘 도서관의 건립계획도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무풍 울평지구 경계결정

무주군은 24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전주지방법원 최미영 판사(위임장)와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무풍면 울평지구(지성리 1번지 일원) 397필지 309,248.2㎡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에 앞서 무주군은 지난해 울평지구에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가 임의한 가운데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소재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의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계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의 결정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경계가 확정되며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축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해당 필지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재조정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우렁이 농법, 청정환경 보전 앞장

지속적인 홍보·교육 실시

진안군은 우렁이 농법을 위해 논 우렁이 적기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24일 진안군에 따르면 우렁이 농법은 물속에 서식하는 풀을 먹는 우렁이의 습성을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제조제 사용을 줄이는 농법이다.

군은 올해 진안군 전체 벼농사 면적 중 부적격지를 제외한 1,600ha를 대상으로 우렁이농법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1,441농가, 1,635ha로 접수 마감됐다.

올해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으로 벼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예상했

으나 신청면적이 소폭 증가했다. 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우렁이농법을 확대해 왔으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정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변화를 이끌어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올해 진안군은 1,441농가, 1,635ha로 우렁이농법 전환 신청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삶의 질 높은 무주 만들겠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24일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6.13 지방선거를 향한 힘찬 출발에 들어갔다.

황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후 첫 선거운동 행보로 소의 계층을 찾아 "취체된 무주경제를 살려 농민과 군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무주군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후보는 "선거운동과정에서는 깨끗한 선거, 상대 비방하지 않는 선거풍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로지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무주군을

최고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황 후보는 ▲보건의료원 정상화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시행과 확대 ▲복합문화 공간인 도서관 건립 ▲다양한 소통의 창구 운영과 열린 군정시행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미래 무주준비 ▲지역경제활성화 등 5대 공약을 내놓았다.

한편 황 후보는 "무주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은 소속을 떠나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발전, 공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후보를 뽑게 될 것"이라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지역민들의 열망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하절기 방역활동 만전

무주군이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24일 읍·면 방역담당자 및 방역 소속 요원 20명을 대상으로 방역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했으며, 방역장비 수리와 약품 배정도 완료했다. 읍·면 방역 소속 요원들은 모기 유충 퇴치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정화조와 저수지, 폐차장 등 454곳에 매일(1회) 유충 구제제를 투입하게 되며,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 약 658곳에는 11월 초까지 주 2회 맞춤형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